**자라섬 재즈페스티벌(JARASUM JAZZ FESTIVAL)**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이 개최되는 가평은 서울과 춘천을 잇는 경기도 동북부 위치하고 있으며 근거리 전원도시의 상징성이 강한 지역이다. 또한 서울과 거리가 짧아 접근성이 용이하여 젊은 층과 다양한 계층들이 문화와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도시이다. 가평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자라섬은 약 45만평의 섬과 육지가 연결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이다. 하늘에서 보면 그 모습이 자라의 모습과 흡사하다 하여 자라 섬으로 불린다.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은 음악과 자연의 조화, 레포츠와 휴식이 함께하는 축제로서의 새로운 문화예술에 바탕을 관광산업 진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모델을 제시하며 국내 최초의 국제 재즈 페스티벌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은 뛰어난 음악성과 대중성을 갖춘 세계 최정상급 재즈 뮤지션들과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뮤지션들, 그리고 아마추어 재즈 뮤지션들까지 해외 15개 팀, 국내 20여개 팀, 총 180여명에 달하는 아티스트들이 자라섬 내 두 개의 메인 무대와 JJ Street, 가평역 앞 JJ 프랜지, 자라섬 재즈센터까지 총 다섯 개의 무대에서 개최되었다.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은 국내 재즈 페스티벌이 부재한 가운데, 국내 최초의 국제 재즈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며 대중들에게 양질의 음악 페스티벌을 제공하고 재즈 애호가들의 높은 욕구와 각종 매스컴이 강조하는 음악 페스티벌의 필요성 충족시켜주며, 다양한 계층의 고객을 확보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페스티벌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문화제단, 아티스트, 민간 기업의 원활한 지원과 상호 교류를 통해 문화발전의 인프라 구축하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형 재즈 페스티벌의 새로운 전형제시를 이루며 성공적인 페스티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www.jarasumjazz.com